

CORPORATE ANALYSIS REPORT OF NAVISTOCK

CARN

기업분석보고서

2013년에 관리 받아야 할 듯

기업명	마이스코 [0887000]
작성자	네비스탁 기업평가팀
작성일	2012년 12월 11일
52주 최고가	4,200
현재가(보고서 작성일 전일종가)	910
Report No.	Q088700-1224C-M0001

■ Caution

본 보고서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13년엔 관리 받아야 할 듯

다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의 요약 재무정보이다.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7	2006	2005
매출액	1,521.09	888.77	625.86	405.17
영업이익	156.16	136.32	87.51	73.44
당기순이익	126.50	91.28	62.83	53.67
자산총계	1,794.34	934.34	610.98	361.89
부채총계	993.58	656.40	421.78	236.19
자본총계	800.76	277.94	189.20	125.70

이 기간 회사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55.87%, 평균 영업이익률은 19%,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14%에 달했다. 나뭇데 없었던 회사의 실적은 2009년부터 급전직하(急轉直下)하게 된다.

<참고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억원)

구분	2012.3Q	2011	2010	2009
매출액	937.99	1,210.88	816.79	885.16
영업이익	-65.52	-56.57	-164.48	-8.52
당기순이익	-126.86	-218.21	-215.10	-24.41
자산총계	2,064.18	2,122.78	2,056.87	1,991.36
부채총계	1,494.54	1,432.30	1,241.14	954.91
자본총계	569.64	690.48	815.55	1,036.46

이미 지난해 동종기업인 평산이 실적악화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단조업체 업체들의 경영난을 분석한 뉴스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넘쳐났었다. 특히, 단조업체들은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에 속해 있었기에 단조업체들의 몰락은 시장에 큰 충격이었다.

시장에서는 단조업체 몰락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한 풍력발전 시장의 경기 침체와 기술력의 비교열위(유럽, 미국 등의 기업들 대비 낮은 기술수준과 저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제품 생산), 가격경쟁력 상실(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무리한 투자(어긋난 업황 전망에 기초한 생산시설 확충) 등을 꼽고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신공장 건설 투자를 단행해 2010년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회사 관계자는 신공장 가동으로 소형단조품에서부터 대형단조품까지 생산이 가능해져 연 평균 60% 이상의 외형 성장과 함께 2010년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영업적자 164.48억, 당기순손실 215.10억과 2011년 영업적자 56.57억, 당기순손실 218.21억으로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게 된다.

회사는 2009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도 연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될 경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2013년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경기악화로 단조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기 전에는 앞 다투어 장미빛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던 증권사들은 이제는 분석보고서 조차 내놓지 않고 있고, 투자에 기본적인 위험요소 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 회사가 첫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2009년 일부 증권사는 목표주가로 66,300원, 47,000원을 제시했었다.

반면, 대다수 소액주주들(개인투자자들)이 업황 회복을 고대하며 여전히 주가하락을 감내하고 있다. 소액주주들(개인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 의사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